

중부발전, 인니 전력시장 진출 中企 전력 기자재 수출 돕는다

K-그리드수출 얼라이언스 출범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도와 발전소 정비·자재보관 시설 제공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중부발전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쪄레곤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식'과 'KOMIPO-Factory 개소식'을 개최하고 전력 기자재 수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K(KOMIPO)-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행사에는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 양석환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참사관, 한중호 상무관, 이장희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관장과 중부발전 해외동반 진출협의회(이하 해동진) 조선영 케이엘이에스 회장 등 11개 회원사 대표 등 32명이 참석했다.

중부발전은 얼라이언스를 통해 플랫폼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쪄레곤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부발전

폼 방식 보일러 노내 비계, 화재방지 보온재, 스윙 블라인드 밸브, DCSI/O 자동 진단장치, 누설전류 제한 장치 등 다양한 전력 기자재 수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패키지' 수출 모델 구축이 목표다.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발전소 운영,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제공해 한국 기업들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출범식 이후 인도네시아 반텐주 쪄레곤에서 중부발전과 해동진

회원사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 정비와 자재 보관 시설인 'KOMIPO-Factory' 개소식을 개최했다.

KOMIPO-Factory는 인도네시아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자재 보관, 긴급 반출, 현지 정비 공간 제공 등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 향후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운영 중인 6개 발전소들과 긴밀히 연계해 국산 기자재 활용을 촉진하고 현지에서의 유지보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UN 구호식품 조달시장 조준

기재부-조달청과 농식품 기업 지원
민관합동 세미나·현장 컨설팅 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일 유엔세계식량계획(UN WFP)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세미나 및 현장 컨설팅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이 함께했다.

이 세미나는 일산 컨텍스에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농·식품 기업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초청 세미나'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세계식량계획 로마본부의

식품기술관과 선임 조달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에 영양강화쌀을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품 조달시장 참여방법, 기술 및 품질·규격 정보, 일대일 심층 상담 등을 제공했다.

또 정부의 ODA 5개년 계획과 UN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수출지원사업들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6~7일 식품기술 전문가 등과 함께 기업 생산 현장을 찾아 세계식량계획이 요구하는 식품 생산 기술 및 품질 조건에 대한 일대일 심층 컨설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최중경 대사, 한미 산업투자협력 강화 나서

국제투자협력대사 방미... 본격 활동
"양국, 상호보완적 시너지 창출할 것"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임명한 대외직명대사인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10일~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주요기관들과 한-미 간 안정적 경제·산업·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대사는 워싱턴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한-미 산업·투자 협력 세미나'에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미국은 기술력,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에게 없는 강점을 보완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상호호혜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또 "한국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의 미국 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허수신청 적발

한전 감사실, 자체감사 우수사례 발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실태 특별감사 과잉투자 비용 약 117조 발생 차단

한국전력 감사실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주최한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우수 자체감사 사례로 '데이터센터 전기 공급실태 특별감사' 성과와 감사활동 노하우 등을 발표했다.

한전 감사실은 실제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미리 전기공급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부지를 매매해 최소 3배 이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전기공급을 신청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실태 파악을 위해 '데

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2020년 1월 ~ 2023년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예정통지 총 1001건 중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 개발이익 목적의 허수 신청이 678건(6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감사실은 이같은 허수가 대량 포함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자료가 정부에 제공돼 국가적 전력수요예측의 정확성이 결여된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 허수 수요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확한 정보를 정부 측에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내부 감사조치 요구에만 그치지 않고, 특별감사 결과 확인된 데

이터센터 관련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과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지정',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 구축', '부동산 투기제한조치 병행' 등 정책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전 감사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한 허수 수요량은 약 26기가와트(GW) 이상으로, 이같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원자력발전소 18개 이상을 추가 건설해야 하며, 그외 전력인프라 건설비용까지 합하면 약 117조원의 전력설비 과잉투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성과로 평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가스공사,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0일 대구 본사에서 안전의식 제고와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국 사업소장, 안전·청렴 관련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및 서명 ▲안전·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짐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체계적인 안전 관리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자고 다짐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엄수, 적극적인 사전 위험성 평가 시행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입을 모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KDN, 입찰 담합... 3900만원 과징금

협력사 엑셈 들러리 세우 낙찰받아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전이 발주한 구매입찰에 협력사를 들러리로 불러 담합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

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KDN과 협력사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KDN 입찰

담당자는 2022년 10월 12일 나주시 본사 인근 찻집에서 엑셈 영업상무를 만나, 입찰에서 한전KDN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엑셈 남부지사장은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입찰 당일인 2022년 10월 31일에는 한전KDN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투찰, 결국 한전KDN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8 | 해질 / 18:36

3월 12일 (수)
음력 : 2월 13일

수도권 날씨
6 ~ 1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12, 동두천 3/13, 가평 2/12, 파주 2/12, 서울 6/13, 양평 3/13, 인천 5/11, 수원 5/12, 용인 5/12, 평택 3/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캐나다 온타리오, 美수출 전력에 25% 할증... 트럼프 "관세 남용국"
▲'우크라이나 평화군' 논의 본격화...파리서 30개국 군수뇌부 회의 /사진 뉴시스

▲주일 중대사 "日총리 방중 협의중...연내 한중 일 정상회의 참가"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4월? 6월?... 시기, 장소 두고 물밑 신경전

▲머스크 "경영에 큰 어려움" 테슬라 폭락에도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美노동부 장관 후보, 상원 인준 통과...진용 갖 춘 트럼프 내각